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

상징적 드로잉 기법을 통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희용

상징적 드로잉 기법을 통한 표현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김성복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김희용

인 준 서

김희용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살아 있는 동, 식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영혼이나 기(氣), 에너지, 생명력이 스며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자연물, 사물은 마치 기운과 에너지가 결합된 물질 자체로 여겨지는 일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이나 나무, 자동차 등이 그렇다. 오로지 그 장소에 필요한 사물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작품 제작에 앞서,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이 가능한 ‘돌’을 사용하여 자연물에 생명력을 표출하는 듯한 이미지 재현에 관한 탐구를 하였다. 또한 ‘작품에 내재된 에너지, 밀도 있는 생명, 표현하고 있는 물체의 독자성을 내부에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헨리무어의 말을 인용, 재해석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예술적인 시각에서 생명력을 의미하며, 그것을 본인의 작품에 담아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술적 영원성과 무한히 선회할 수 있다는 나선을 돌에 새김으로서, 마치 무생물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나뭇의 기운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각 기법을 연구하고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선각의 대비효과와 자연석(오석烏石)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돌의 종류는 다양하고, 또한 저마다 다른 특징과 그만의 언어를 담고 있다. 강가나 바닷가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들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여왔다. 하지만 선을 새겼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 대비효과가 잘 드러나는 검정색 빛을 내는 오석으로 작업을 하였다. 자연석인 오석 표면에 나선을 새긴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력에 대한 고찰 및 만물에는 나뭇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일러

주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하게 된 배경과 표현 방법, 분석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였다. 그리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과 나선의 의미에 관해 조사하여 서술하였고, 작품 표현의 방법으로는 사물 표면에 새겨진 선들과 반복적 행위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돌의 특성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해 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에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으로 작품에서 나타난 생명력과 작품 표면에 새겨진 나선의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반복적 행위를 통해 사물표면에 새겨진 선들의 의미와 자연석(오석烏石)의 특성을 탐구하고 작가 본인의 작품을 분석, 설명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본인의 작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3
1) 생명력	3
2) 영원성	5
2. 작품의 표현 방법	8
1) 반복적 행위의 선각	8
2) 자연석(오석烏石)의 대비효과	10
3. 작품 분석	13
III. 결론	3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새기다-기(氣), 290x200x320(mm), 오석, 2015	13
【작품 2】 새기다-기(氣), 390x280x190(mm), 오석, 2015	15
【작품 3】 새기다-기(氣), 370x380x200(mm), 오석, 2015	17
【작품 4】 새기다-기(氣), 460x370x150(mm), 오석, 2015	19
【작품 5】 새기다-기(氣), 500x300x580(mm), 오석, 2015	21
【작품 6】 새기다-기(氣), 370x450x240(mm), 오석, 2015	23
【작품 7】 새기다-기(氣), 250x380x230(mm), 오석, 2015	25
【작품 8】 새기다-기(氣), 650x1700x550(mm), 오석, 2015	27

I. 서 론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 신비스러움을 느끼거나 예술적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와 생명력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돌, 나무, 책상, 자동차 등의 자연물이나 모든 사물에는 우주적인 힘과 혼이 깃들여져 있으며, 그것을 ‘기(氣)’라고 불렀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생명력과 기를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며, 본인 또한 흔히 보여지는 사물들 중에 자연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과 에너지의 흐름을 무한히 선회하는 선을 선각 표현 기법을 통해 작품에 기(氣)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각은 인류 역사의 흔적 중에 가장 오래된 표현 기법이며, 새기는 행위를 통해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차적 생명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선각의 표현 기법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기록하고, 정보 전달을 위해 그림이나 문자로 남기고자한 하나의 표현 기법이었다.¹⁾ 본인은 이 선각의 표현 기법을 통해 영원한 생명력을 작품에 남기고자 하였다.

반복적으로 새겨진 선들은 동일한 무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선들이 새겨진 간격의 차이, 손의 떨림, 주어진 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표면에 질감이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본인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선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 고도의 집중력과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한다.

본인은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 중, 자연석을 재료로 삼았다. 그 안에 내재된 형용불과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돌의 표면에 선을 새기는 행위를 함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선의 대비효과가 잘 드

1) 임두빈, 『원시미술의 세계』, 가람기획, 2001, p.108

러나는 검정색을 띤 오석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의 배경, 표현, 분석을 논하였다. 작품 형성 배경에서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과 나선의 조형적 특징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작품 표현 방법에서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사물 표면에 새겨진 선의 의미를 논하였으며, 자연석(오석烏石)의 특성과 선각의 대비효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제작 방법과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Ⅱ. 본 론

1. 작품의 형성 배경

1) 생명력

현대사회 안에서 지각된 생명력은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에너지와 생명의 움직임은 작가와의 교감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선들을 통하여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를 표현하였다. 그 에너지는 생명력을 형성하며, 사물이나 생물체가 지니고 있는 기(氣)를 유지해나가는 힘을 의미한다.

헨리무어(Henry Moore, 1898~1986)는 아래와 같이 생기론(生氣論)을 말하고 있다.

“표현의 생기와 힘, 작품은 우선 그 자체의 생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생기란 생활의 생기나 운동의 생기, 뛰놀고 춤추는 인체의 행동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내재된 에너지, 밀도 있는 생명,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물체의 독자성을 내부에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작품은 자연적인 외형을 복제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은 실재(實在)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고……생명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며 생존을 위한 큰 노력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²⁾

2) 허버트 리드, 『서양현대조각의 역사』, 김성희 옮김, 시공아트, 1998, p.153

헨리무어는 작품 고유의 생기, 즉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표현하려 하였고, 본인도 그 정신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흔히 뛰어난 예술품에는 생명력 또는 생기가 있다고 말하며, 작가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 생명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³⁾ 본인은 자연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 표면에 나선들을 새김으로서 생명의 존엄함과 숭고함을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앞서 나선에 대해 심층적으로 학습하였다. 나선의 사전적 의미는 나선모양으로 빙빙 틀리어 돌아간 형상을 한 것을 뜻하며, 평면상에 있어서 소용돌이 모양의 곡선이나 직선의 무늬를 말한다. 나선은 인류의 역사를 이어온 생명의 기본형이며, 생명의 근원과 세월, 태양, 우주, 시간의 흐름, 영원성, 순환, 무한성 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팔자 나선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불멸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중 나선은 시간, 흐름, 간격을 상징하고 있다.

조형 요소 중 하나인 선은 무수한 점들이 연속해서 나타난 것이며, 역동적인 행위와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선의 방향에 따라 운동감은 다르게 나타나며, 선의 시각적 속성은 속도감을 의미한다. 또한 선은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려는 물리적인 속성이 있어서, 방향이 바뀔 때 곡선이 형성된다. 곡선의 반복은 나선에 동적인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공간과 속도의 변화에 따라 자유로운 방향성을 가진 나선이 되기도 한다. 나선의 연속성은 다양한 방향성과 운동감을 선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약동하는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선은 자연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기적 형태와 생활 주변에 있는 사물과 공간에 조형화⁴⁾되어 예술

3)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박용숙 옮김, 1984, p.64

4)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p.51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인은 ‘새기다-氣(2015)’ 라는 작품을 통해 자연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기적 형태를 띠고 있는 나선을 오석 표면에 선각의 표현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표면에 무한히 선회하는 나선은 어느 한 기점에서 퍼져나가고 모여지면서 긴장과 이완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리듬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연의 지속적인 생명력과 돌이라는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 역동적인 힘을 강조할 수 있는 조형 언어로 쓰여 지고 있다.

2015년에 연작으로 제작된 ‘새기다-氣’는 생명이나 우주의 시작, 그것이 접혀지고 펼쳐지는 과정에 대한 비유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반드시 힘(에너지, 기)의 투입이나 말소라는 계기가 있다. 초창기에 사용했던 재료 중의 하나인 몽돌의 경우, 오랜 세월이 이미 그 표면에 각인되어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석도 마찬가지이다. 연마과정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보다 바깥에서 투입되는 힘을 더욱 강조하고, 연마된 오석표면에 새겨진 선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과 기운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2) 영원성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고대 선사시대 사람들이 주술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새긴 이의 소망이나 생각을 문자를 대신하여 표현하였을 것이라 추측되며, 세계 각 지역의 유명한 암각화 역시 그렇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존을 이어갔던 당시 사람들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상처 입은 동물의 형상이나 창, 덧, 화살 같은 사냥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과 상징적인 기호들을 날카로운 도구로 동굴 벽

면에 새기거나 안료를 사용하여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 다수확과 풍요를 기원하는 영적 믿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로 접어들면서 농경과 채집, 정착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자연에 대해, 각각의 생명성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라는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⁵⁾

이 시대에서는 크게 3가지로 숭배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숭배이지만, 자세히 연구해보면 각각 신앙의 대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애니미즘은 자연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자신만의 생명, 즉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실제 인류가 아닌 대상이며 바로 그 사물에 감정이 있다고 여기는 신앙이고, 두 번째로 샤머니즘은 하늘이나 혹은 영혼을 당시를 살아가던 인류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무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토테미즘이 있다. 이 신앙은 자신이 속해있는 그 집단의 기원을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 연관 지어 숭배하는 것이다. 본인은 이처럼 자연물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을 작품과 연결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돌에 조각을 하고 암각화에서 나타나는 선각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역사적인 현상이나 사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다양한 생산물, 그들의 정신 상태를 그들만의 양식과 기호로 상징화시켜 선각(線刻)과 면각(面刻)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암벽에 남기고자 하였다.

암각화에 표현된 여러 가지 상징부호들은 새기는 행위를 통해 영속적인 보존과 생명의 영원불멸함을 기원하고 생명체에 대한 영적인 상징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법이였다.⁶⁾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암각화에서 나타나는 그림이나

5) 지그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1997. p.165

6) 레오나르도 아담, 『원시미술』, 김인환 옮김, 동문선, 1999. p.89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는 조각품은 미술을 통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남기기 위해 나타난 하나의 기술과 표현 방법이였으며, 미술의 역사이기도 하다.

2. 작품의 표현 방법

1) 반복적 행위의 선각

자연물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와 생명력을 본인은 그 대상과의 교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을 작품 표면에 선(線)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2015년에 연작으로 제작된 ‘새기다-氣’ 라는 작품에서 나타난 선들은 다양한 굴곡과 일정하지 않은 모양 또는 문양을 띄고 있으며, 때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움직이고 있는 듯한 선들의 이미지는 자연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과 생명력을 더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 표면에 새겨진 선들은 어느 한 기점에서 퍼져나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나선들이 오석표면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한다는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굴곡 면에 위치한 기점과 기점의 만남은 힘과 힘이 부딪혀 더 큰 나선이 확장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돌 위에 새겨진 선에는 손의 떨림, 감정의 기복이 지진파처럼 드러난다. 선의 분산적인 흐름과 응집은 작품 안에 내적인 에너지와 기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과 무한한 생명력까지 느끼게 해준다.

7) 선의 사전적 의미-미술에 있어서 보통 색(色), 면(面)과 함께 형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특히 채화(彩畵)와 구별되는 묘화(描畵)에서는 선 자체가 하나의 분야가 된다.……표현적인 예술에 있어서 선은 현실성의 상징적 표현이 된다.……선의 기능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선에는 내부 촉각 특히 운동에 관한 재생 감각을 매개로 하여 감정이나 의욕 또는 정취가 쉽게 결합된다. 즉 방향, 속도, 힘, 장단, 굵고 가는 것, 소밀(疏密), 굴신(屈伸) 등의 기교에 의해 무한한 정신 표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의 선은 대상의 의미나 표상(表象)과 협동하거나 또는 그것과 독립적으로 유정화(有情化)되거나 생명화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는 선의 기능으로는 선의 체감적인 단축에 의한 원근법의 효과나 선의 농담(濃淡), 단속, 굵고 가늘기 등의 수법에 의한 색채 및 명암의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화면에 실제로 선이 존재하니 않는다고 해도 그 면의 각 부위 사이에 자연히 일정한 시선 방향이 고정되고 그것이 구도의 중요한 구성 요인이 된다. 이기영 『세계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 엮음, 1999, p.242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는 “반복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유사한 것도 등가적인 것도 갖지 않은 어떤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것과 관계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이 반복은 그 자체로 아마 더욱 비밀스러운 어떤 떨림의 반향일 것이다. 그것은 더욱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반복의 반향, 다시 말해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단독자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의 반향이다.”⁸⁾라고 하였다. 본인은 자연석 안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생명력과 기운을 작품 표면에 선을 새기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검은 바탕 위에 새겨진 흰 선은 최초의 시작이라는 극적 행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시작이 있는 만큼 끝도 있고, 펼쳐진 주름은 어디선가는 접혀지며, 코스모스는 카오스로, 빛은 어둠속으로 사라질 것이다.”⁹⁾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자연석 표면에 새겨졌을 때, 그 안에서 선들의 움직임과 공간감, 또 다른 입체감까지 느낄 수 있다. 이러하듯 예술은 반복이지만 차이를 가진 반복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계적 반복에 의해 움직인다. 되돌아갈 수 있음, 다시 시작됨은 예술로서 긍정을 나타낼 수 있고, 단순한 기계적 반복은 부정을 의미할 수 있다. 기계적 반복은 누가하던 아무상관 없이 반복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지상의 삶을 영위하는 필요한 노동은 고역이 되고, 예술을 거부하려는 지점으로 남아 있으려 한다. 예술은 차별이 아닌 차이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질 들뢰즈는 “반복은 동일성을 자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반복은 비슷한 것을 다른 존재로 있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게 된다. 이처럼 반복은 단순한 동일성의 실현이 아니며 또 하나의

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p.26

9) 이선영, 『물질의 표면에서 떠나는 나선형 시간여행』, 전시서문, 2015, p.1

다른 의미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¹⁰⁾라고 했듯이, 반복적으로 새겨진 선들은 동일한 문양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선들이 새겨진 간격의 차이라든지 곡선의 차이, 손의 떨림, 주어진 힘에 따라서 선들의 모양이 달라지며, 형태나 표면의 질감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련의 선들은 응집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한다. 그리고 선을 새기는 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 자연석 안에 내재된 기운을 ‘새기다-氣(2015)’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2) 자연석(오석烏石)의 대비효과

차가운 돌에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삶과 함께 계속 되어왔다. 돌이란 것은 가장 단단하고 영속적인 존재로 여겨왔으며, 돌을 숭배하고 신성시했다.¹¹⁾ 이미지를 돌 표면에 새기는 작업이나 의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돌은 작가의 손길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본인도 돌조각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과 기(氣)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돌은 오랜 세월동안 각종 풍화 작용을 견뎌온 자연 생태적인 재료이다. 선각은 에너지와 기운을 담아내는 직접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이며, 나선을 사용해 생명의 영원성을 내포하고자 하였다. 돌이라는 자연물과 선각의 결합은 본인의 작품 제작에 있어 중요한 표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자연석은 시간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무늬도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세월에 흐름을 담고 있는 유기물인 자연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명의 영원성을

10)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p.100

11) 박옥순, 『박옥순 · 생의 한 가운데서 일상을 조각하다』, 하얀 울타리, 2011, p.5

나타내는 나선을 본인의 작품인 ‘새기다-氣(2015)’에 새겨 넣어 돌의 생명력과 나선의 영속적인 생명력을 일체화시켜 표현하였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지할 수 있는 무한한 기운, 힘, 에너지 등은 자연 안에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인 돌은 무한한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의 종류는 다양하고 모양도 제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리적 특성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공했을 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며, 다양한 색과 이미지를 담고 있다.

본인은 많은 자연석들 중에 강이나 산에서 수집한 자연석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지만, 선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석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오석은 상당히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돌이며, 어두운 색채를 가지고 있는 돌중에 하나이다. 광을 내기 전에는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연마하여 광을 내면 반짝이는 검정색 표면을 지니게 된다. 광을 낸 오석표면에 핸드피스를 이용하여 선을 새기면 흰색 선이 나타난다. 검정색과 흰색의 극명한 대비로 인해 선각의 표현 기법이 더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본인의 작품인 ‘새기다-氣(2015)’는 돌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를 돌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과 기운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다. 초창기에 사용했던 재료 중에 하나인 몽돌의 경우, 오랜 세월이 이미 그 표면에 각인되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석에 표면이 연마되면서 또 다른 시작점을 만들게 된다. 오석의 경우 선을 새기는 시간보다 연마하는 시간이 더 걸릴 정도로 연마는 중요한 단계이다. 연마된 검은 바탕 위에 새겨진 흰 선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시작점을 의미한다. 기의 퍼져나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품5】 , 【작품6】 에는 새겨진 선 안에 금색으로 색을 내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마치 온 생명의 기원이 태양처럼 기

운을 발사하는 것이다. 【작품1】 , 【작품2】 , 【작품8】 은 서로 다른 굴곡 면에 위치한 기점과 기점이 만나고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 힘과 힘이 부딪혀 더 큰 나선의 확장을 보이기도 하고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여러 기점에서 나타난 나선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양방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석의 굴곡 면을 따라 흘러가는 곡선들은 유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운동감까지 보여준다. 【작품3】 , 【작품4】 는 한 기점에서 나선이 퍼져나가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에너지와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기점에서 퍼져나가게끔 선을 새겨 넣었다. 오석 표면에 새겨진 선들로 인해 새로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을 통해 기운이 흘러넘치는 듯한 느낌을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7】 은 다른 작품과 달리 어느 한 부분에만 선을 새겨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돌 겉면에 나타나는 결을 따라 선을 새겨 넣은 작품이다. 돌에서 보여 지는 결은 돌이 가지고 있는 세월이며 에너지의 흐름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를 어느 한 부분만을 통해 표출시켜주고자 하였다. 이는 안과 밖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작품 분석



【작품1】 새기다-氣, 290x200x320mm, 오석, 2015

【작품1】 새기다-氣

크기 : 290x200x32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4인치 그라인더로 오석 표면에 거친 부분을 갈아낸 후, 지석(砥石)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3) 폴리셔를 사용하여 오석 표면을 연마하여 광을 낸다.
- 3) 광이 난 돌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위에 새겨질 선을 생각해본 후, 핸드 피스로 선을 새겨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다양한 사물들 중, 자연석인 오석(烏石)을 재료로 삼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기운을 선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반복적으로 새겨진 선들은 운동감과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무한한 생명력과 기운을 내포하고 있다.

‘새기다-氣’라는 작품에서 보여 지는 선들은 무한한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각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인은 관객들이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함으로써 돌의 굴곡 면이나 질감 등을 생생하게 느꼈으면 한다. 이와 같은 관객의 참여는 작품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작품 2】 새기다-氣, 390x280x190mm, 오석, 2015

【작품 2】 새기다-氣

크기 : 390x280x19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4인치 그라인더로 오석 표면에 거친 부분을 갈아낸 후, 지석(砥石)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 3) 폴리셔를 사용하여 오석 표면을 연마하여 광을 낸다.
- 3) 광이 난 돌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위에 새겨질 선을 생각해본 후, 핸드 피스로 선을 새겨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작품에 새겨진 선들을 통하여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기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에너지와 기운은 새로운 생명력을 형성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는 불어넣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수용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선을 새겨 작품을 제작하였다.

곡면으로 이루어진 오석 표면에 나타난 선은 여러 기점에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움직임들 만들어 내고 있다. 움직이는 작품은 아니지만 곡선들이 작품을 채워나가면서 운동감과 또 다른 공간감, 입체감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작품 3】 새기다-氣, 370x380x200mm, 오석, 2015

【작품 3】 새기다-氣

크기 : 370x380x20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표면에 거친 부분은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갈아낸다. 기계자국은 지석을 이용해 다듬어준다. 그 후 폴리셔를 이용해 오석 표면에 광을 내준다.
- 3) 광이 난 오석 표면에 핸드밀러를 사용하여 선을 새겨 넣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지할 수 있는 무한한 힘, 에너지, 기(氣) 등은 자연 안에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에 무한한 기운과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오석을 재료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기(氣)와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의 대비효과가 잘 드러나는 오석 표면에 어느 한 기점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게끔 선을 새겨 넣었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수렴되고 발산되는 기를 의미한다.



【작품 4】 새기다-氣, 460x370x150mm, 오석, 2015

【작품 4】 새기다-氣

크기 : 460x370x15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코아기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구멍을 뚫어 준다.
- 3) 원통형 안쪽 면을 핸드밀러를 이용해 다듬어준 후, 4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해 안쪽 표면을 광을 내준다.
- 4) 오석의 겉면은 6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다듬어준 후, 폴리셔를 이용하여 돌 표면에 광을 내준다.
- 5) 원통형 안쪽에서부터 오석 바깥 면까지 선을 새겨나가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기(氣)를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연마된 오석 표면에 핸드피스를 사용하여 동적인 운동감을 가지고 있는 곡선을 원통형 안쪽 면에서부터 밖으로 퍼져나가게끔 새겨 넣었다. 한 기점에서 퍼져나가는 선은 돌 안에 에너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을 새기는 행위는 에너지와 기운이 바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차적 생명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5】 새기다-氣, 500x300x580mm, 오석, 2015

【작품 5】 새기다-氣

크기 : 500x300x58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구형태의 돌을 반으로 나눈다. 나뉜 면과 면 사이에 구멍을 뚫는다.
- 3) 구멍에 양카를 박아 고정시킨다.
- 4) 표면에 거친 부분은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갈아낸 후, 기계자국은 지석을 이용해 다듬어준다. 그 후 폴리셔를 이용해 오석 표면에 광을 내준다.
- 5) 광이 난 오석 표면에 핸드밀러를 사용하여 선을 새겨 넣은 후, 새겨진 선 안에 금색을 넣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본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여 지는 사물들도 그들만의 존재 이유가 있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원적인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물들 중 돌을 재료로 선택하여 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동적인 운동감을 가지고 있는 곡선과 나선을 연마된 오석 표면에 선각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선의 분산적인 흐름과 응집은 작품 안에 내적인 에너지와 기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과 무한한 생명력까지 느끼게 해준다. 에너지와 기운들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새겨진 선 안에 금색을 넣어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6】 새기다-氣, 370x450x240mm, 오석, 2015

【작품 6】 새기다-氣

크기 : 370x450x24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표면에 거친 부분은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갈아낸 후, 기계자국은 지석을 이용해 다듬어준다.
- 3) 부분적으로 갈아낸 오석 표면에 폴리셔를 이용해 광을 내준다.
- 4) 광이 난 오석 표면에 핸드밀러를 사용하여 선을 새겨 넣은 후, 새겨진 선 안에 금색을 넣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자연석은 시간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양이나 무늬도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세월에 흐름을 담고 있는 유기물인 자연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운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생명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나선을 새겨 넣어 새로운 생명력과 기(氣)를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새기다-氣(2015)'작품은 돌의 생명력과 나선의 영속적인 생명력을 일체화시켜 표현하였다. 그리고 돌의 굴곡 면을 부분적으로 연마하여 나선을 새겨 넣어 선 안에 금색으로 색을 낸 작품이다. 이것은 생동하는 에너지와 기운이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선이 오석 표면에 새겨지는 순간, 생동하는 에너지를 표출해내고 있다.



【작품 7】 새기다-氣, 250x380x230mm, 오석, 2015

【작품 7】 새기다-氣

크기 : 250x380x23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오석에 한 부분을 4인치 그라인더로 갈아낸다. 그 후 지석을 사용해 표면을 매끄럽게 해준다.
- 3) 부분적으로 갈아낸 돌 표면에서 폴리셔를 이용해 광을 내준다.
- 4) 부분적으로 광이 난 돌 표면에 나타나는 결을 표시한다.
- 5) 핸드피스를 사용해 돌의 결을 따라 선을 새겨 넣어 작품을 완성한다.

작품설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지할 수 있는 기, 에너지, 힘 등은 우리 주변에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인 돌에 무한한 기운과 생명력이 스며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연석(오석)을 재료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작품에 전체적인 형태는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 돌 겉면에 나타나는 결을 따라 선을 새겨 넣은 작품이다. 돌에서 보여 지는 결은 돌이 가지고 있는 세월을 의미한다. 돌 안에서 흐르고 있는 기운을 어느 한 부분을 통해 들어내 줌으로써 안에 있는 기운을 밖으로 표출시킨 작품이다. 안과 밖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 8】 새기다-氣, 650x1700x550mm, 오석, 2015

【작품 8】 새기다-氣

크기 : 650x1700x550mm

재료 : 오석

연도 : 2015

제작방법

- 1) 자연석(오석)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 2) 오석의 전체적인 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5개의 돌을 선택한 후, 어떻게 쌓아올릴지 스케치를 한다.
- 3) 돌의 밑 부분과 윗부분을 8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을 맞춘다.
- 4) 접합될 돌 윗부분과 밑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 5) 8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해 돌 표면을 다듬어준 후, 폴리셔를 사용하여 광을 낸다.
- 6) 광이 난 5개의 돌중에 3개의 돌을 선택하여 선을 새긴다.
- 7) 접합되는 부분에 뚫어준 구멍에 양카 볼트를 끼워 넣어 5개의 돌을 조립하여 작품을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돌의 모양과 크기는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기운들과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본인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오석 표면에 무한히 선회하는 나선을 새겨 기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어느 한 기점에서 퍼져나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하면서 긴장과 이완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선은 자연의 지속적인 생명력과 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氣)와 역동적인 힘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 기법이다. ‘새기다-氣(2015)’ 라는 작품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선들은 동일한 형태를

가진 문양처럼 보일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차이가 발생한다. 선들이 새겨진 곡선의 차이, 간격의 차이, 손의 떨림과 힘에 따라 선의 모양이 달라지며, 돌의 형태와 질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선들은 응집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다. 작품에 새겨진 선들은 오석 안에 새로운 공간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며,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돌 표면에 선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자 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이 자연물에서 느껴졌던 무한한 에너지와 기운을 사물 표면에 반복적 행위를 통해 선을 새기고 그 곁으로 나타난 생명력과 표현된 선의 이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연 안에 속해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든 생명이 없는 사물이든 그 안에는 생동하는 에너지, 기(氣), 생명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다양한 사물들 중 우리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을 선택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돌은 자연현상 속에서 생성과 소멸,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형태로 남는다. 그 안에는 기운과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으며, 무한한 에너지를 표출한다. 돌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돌 표면에 퍼져나가기도 하고 모여지기도 하는 다양한 패턴의 선들을 새겨 넣어 생명력과 기운을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돌 표면에 새겨진 선의 모양이나 방향, 간격은 조금씩의 차이가 나타난다. 오석의 굴곡 면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손의 떨림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일련의 선들은 응집되어 보이기도 하고 분산되어 보이기도 한다. 다양한 방향성을 가진 선들이 자연석 표면에 새겨 졌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입체감과 공간감, 움직임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석 표면에 선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자 하였으며, 그 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기법을 통해 내재된 생명력과 기운을 ‘새기다-氣(2015)’라는 작품을 통해 표현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작품에 녹아들게 할 것인지를 모색해나가야 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원적인 생명력과 기운, 생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물을 본인이 찾아내고 근원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선을 새기거나 그려 넣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작품으로 제작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의 대한 소중함과 생명력에 대한 고찰, 만물에는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박옥순, 『박옥순 · 생의 한 가운데서 일상을 조각하다』, 하얀 울타리, 2011.
- 임두빈, 『원시미술의 세계』,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1.
-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1991.

《번역본》

- 허버트 리드, 『서양현대조각의 역사』, 김성희 옮김, 시공아트, 1998.
- 수잔 K. 령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옮김, 문예출판사, 1984.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 지그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1997.
- 레오나르도 아담, 『원시미술』, 김인환 옮김, 동문선, 1999.

《전시서문》

- 이선영, 『물질의 표면에서 떠나는 나선형 시간여행』, 2015.

《사전》

- 이기영, 『세계미술 용어사전』, 월간미술 엮음, 1999.

ABSTRACT

Expression research on symbolic drawing method

-On The basis of my work -

Kim, Hee Yong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nature, whether it is an object without life or animals and plants with life, all things are embedded with an element of soul, vitality, energy, and life. However, in the modern world, in many instances, natural objects or objects are perceived as objects without vitality or energy. Object such as stones, trees and automobiles, etc., or objects we can easily see on the street are such examples. It is as if those objects are objects that are solely needed for that specific place.

Before working on the project, the author explored ways to reproduce an image that shows the vitality of natural objects via stones, an object easily found in our daily lives. Furthermore, the project was conducted citing and reinterpreting quotes from Henry Moore, who said “a work can have in it a pent-up energy, an intense life of its own, independent

of the object it may represent.” This refers to vitality in an artistic perspective, and the author tried to reproduce it in the project. Moreover, by engraving magical eternity and ever-circling spiral lines on to the stone, the author wanted to remind everyone that even objects that does not seem to have life, does have some form of force in them. To express such point, firstly, the author utilized and studied line carving technique, and secondly, the author studied contrasting effect of line carving and the features of the Obsidian stone.

There are many kinds of stones, and every stone have distinctive features and hold its own language. Stones that were easily seen near the river or sea were used for the production. However, when engraved, the effect was not effective as planned. Therefore, black colored Obsidian stones were used to maximize the contrasting effect. The reason spiral lines were engraved on to the surface of the natural Obsidian stones, were to tell everyone in modern time, the importance of nature, and prompt us to think about vitality and the distinctive existence value inherent in all objec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author’s work, we discussed extensively regarding the background for how this project was conceived, the usage of expressions, and the analysis that goes along with the work. Therefore, vitality and the meaning of the spiral lines were explored and discussed. In terms of expression, the lines on the surface of the object and the rationale behind the repetition were discussed. Furthermore, the features of the stones, and the method used to express the inherent

energy, was also explored.

This thesis is a study based on the art works made in 2015.

In part 1, the Introduction, research methods and objectives of the author's art works are described.

Part 2, the main part, explores vitality expressed in the art works due to the background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art work, and the meaning and symbolism of the engraved spiral shape. Furthermore, through repetition, based on the meaning of the lines on the surface of the object and the features of the obsidian stone, author's art works were analyzed and explained.

In part 3, the conclusion, the content of this thesis was summarized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author was presented.